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인숙^{1*}, 박선희²

¹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²통합힐링복지협회 부회장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Impact on improving communication in the elderly

Kim In Sook^{1*}, Park Sun Hee²

¹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Business Administration, Tongmyong University

²Vice-chairman, Section Manager, Integrative Healing Welfare Association

요약 본 연구는 이용시설노인들을 대상으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H시 S복지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명을 주 1회 60분씩 3개월 간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노인들이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회기별 의사소통과 관련된 심리 및 행동 변화를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의 행동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인들에게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은 심리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 차문화융합, 프로그램, 노인, 의사소통, 이용시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n improving communication by conducting a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for elderly people using facil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a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for 3 months, 60 minutes once a week for 7 people using the Elderly Day Care Center in the H-S S welfare center.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related to communication by sessions were compared by comparing elderly patients at each session of the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s and attitudes related to communication among the elderly in the facilities. As a result of analyzing pre- and post-action and attitudes, the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brought positive changes in communication by acting as emotional and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is a psychologically necessary program for the elderly in that it shows that the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is an effective program that promotes communication among the elderly in the facilities.

Key Words : Te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senior citizens, communication, and facilities

*교신저자 : 김인숙 (ts3260@hanmail.net)

접수일 2019년 12월 27일 수정일 2020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5일

1. 서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4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12.7%에 도달했고,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각 증가한 후 중위연령이 2014년에 40.2세, 2040년에 52.6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국사회는 급속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1]. 이에 증가하는 노인의 질병, 빈곤 및 무위, 외로움, 우울, 불안, 역할상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노인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2]. 반면 길어진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한 노인과 중년의 고민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3]. 노년기의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의 만족 조건으로는 경제안정과 정신건강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4, 5, 6].

또한, 노인 관련 사회문제들의 원인이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부적응으로 파악되고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차원이나 국가안녕 차원에서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7].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가족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가족 간의 연대가 느슨해지면서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에 의한 사회적 관계의 지원 체계에 대한 의미가 점점 중요해진다[8]. 그리고 노년기에는 자녀 외에 친구와 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교우관계는 상호 간의 삶의 양식을 인정하고, 우정을 나누고,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며,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년배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장소로 공간적 접근성이 용이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참여하여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2].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이 되는 반면 노인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인 고독감과 소외감을 더하여 그동안 살아온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경험들을 겪으면서 좌절, 불안, 분노, 상처 등으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9]. 오랜 시간 지녀온 노인들의 취향이나 습관을 억제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관계의 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노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타인에게 털어놓으며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매우 부족하다[10].

이와 같이 이용시설 노인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분석하

여 노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환,김양희(2009)[11]의 연구 '노년층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서 상태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노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은, 이수한(2007)[12]은 농촌지역 여성 노인의 부부 의사소통 연구에서 노인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영나(2001)[13]은 노인들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선우(2002)[14]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국 의사소통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살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행위이다[15].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용시설 노인들에게 있어서 원만한 의사소통이 동년배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서로의 가치관과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시설 노인들 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서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고, 의사소통 수준 향상을 통해 자기와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건강한 삶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차문화는 한국 전통 생활 문화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찾자리 자체가 동년배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노인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을 향상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차문화를 통한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긍정적 감정을 소중하게 수용하는 건강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1.1 연구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노인의 의사소통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의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이용시설 노인의 의사소통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1.2 용어의 정의

1.2.1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반응, 관심, 즐거움과 유머, 이름에 대한 반응, 일반적인 지식 및 소재의식, 게임에 참가하는 능력, 발언, 의사소통의 의욕, 대상에 대한 흥미’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시설노인들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반응, 과거 사건에 대한 관심, 즐거움, 웃는 얼굴, 게임에 참가하는 능력, 발언, 의사소통의 의욕, 동년배들에 대한 관심, 가족에 대한 수용, 소근육 운동 등 신체적 표현’으로 정의한다.

1.2.2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나누어지며 수용시설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이 있다. 이용시설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노인대학 등의 일반이용시설과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단기보호시설 등의 재가복지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시설노인이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노인주간보호시설내의 노인을 말하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종합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70세 이상의 노인 7명을 사회복지사와 생활보조원의 도움으로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General points of old age under study

object	gende	age	Current partner	religion	economic power	Family Relations
A1	Woman	82	elder who lives alone	No religion	poor	son1, daughter2
A2	Woman	79	elder who lives alone	Buddhism	poor	be childless
A3	Woman	77	daughter	Christianity	fair	daughter1
A4	Woman	87	daughter	No religion	fair	daughter2
A5	Woman	85	elder who lives alone	No religion	poor	daughter2
A6	Woman	72	daughter	No religion	poor	daughter3
A7	Woman	74	elder who lives alone	Buddhism	fair	daughter2

2.2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매주 1회기 60분씩 실시하여 총 12회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실시 장소는 S복지관 내 강의실에서 진행하였고 주간보호센터에 근무자인 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주간보호센터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있어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본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기법 주에서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기법들을 발췌해서 연구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구성한 것이다.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은 초기단계, 실행단계, 종결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완전히 구조화된 것은 아니며, 때로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적절히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므로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결합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2.4 자료분석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태도변화 기록을 활용하였다.

각 회기별 노인들이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야기를 토대로 각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회기별 의사소통과 관련된 심리 및 행동 변화를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ea Culture Program

session	subject	activity content	expectation effectiveness	
initial stage	1	another name	-meditating -Drinking tea -Introduce yourself as an alias	Self-expression of closeness among the elderly
	2	Tea story	-To meditate -Drinking tea -The Origin of Tea -Seeing tea flowers, tea seeds, tea trees -Taste the color, aroma, and beauty of tea	Drink tea to learn the origin of tea and explore your inner self.
	3	Tea Learning about Life and Manners	-To meditate -Drinking tea -Our customs, our manners. -Learn how to drink tea	Explore your life by learning the manners of a tea.
	4	Tea a pushover	-To meditate -Drinking tea -Show Chow Chill -Pour tea for yourself	Through the process we explore within ourselves in humility, decorum, service, and waiting.
execute phase	5	Tea give	-To meditate -Drinking tea -Cold -Care for yourself and treat others to tea.	Through the process of serving tea, you learn about good relationships, manners, and care for others.
	6	Tea with travel	-To meditate -Drinking tea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have memories from? -Talking to each other.	Self-expression through emotional expression and desire detection with tea, full of desire to communicate.
	7	Tea with at memory	-To meditate -Drinking tea -Reminiscing (the person you love) -Singing and clapping	While drinking tea, I think about a meaningful person with me.
	8	Tea necklace	-To meditate -Drinking tea -Make a necklace with car picture paper -Singing and clapping	Effect on improving communication, such as people who want to make necklaces while drinking tea, attention to people, acceptance of others, confidence recovery, positive experience, and increased patience.
	9	Tea pocket	-To meditate -Drinking tea -Speak what you want to put in your lucky bag	While drinking tea, I make a lucky bag that I have made before, and I search for pleasure and
	10	Empty one's mind	-To meditate -Drinking tea -Sharing a difficult situation or a hard thing	Be free by talking to each other about things that have been hard or difficult in the past and understand and forgive the other's position.
close stage	11	The happiest days of one's life	-To meditate -Drinking tea -Sharing the happiest moments of your life -Feedback-	Recalling your happiest days and events, improving your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12	Tea letter	-To meditate -Drinking tea - Writing down the strengths of friends -How do you feel?-	Understanding each other's hardships, recognizing each other's lives, and encouraging each other with emotional support.

3. 연구결과

3.1 단계별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 진행 과정

본 연구의 과정은 초기단계(1회기 ~ 4회기), 실행단계(5회기 ~ 10회기), 종결단계(11회기 ~ 12회기)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자들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 및 태도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단계(1회기 ~ 4회기)에서는 집단원들 간의 친밀감 형성과 긴장 해소 함께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차문화를 통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의 기회를 주어 자기탐색을 유도하였다.

1회기 : **오리엔테이션 및 비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주간 노호센터 내의 긴 일상생활에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의사소통 개선에 대한 주제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 후 의사소통 검사지를 한 문장씩 반복하여 읽어드리며 작성하였다. 그 다음 어린 시절 부르던 별명이나 좋아하는 꽃이나 되고 싶었던 인물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본인의 별칭으로 적었다. A노인은 눈꽃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하사며 별칭을 벚꽃으로 하였다.

2회기 : **차에 대한 이야기** 시간으로 차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차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

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살아오는 동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힘이 되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는 시간이었다. A노인은 첫 아이 낳았을 때 기뻐던 일들을 떠올리며 차 이야기와 함께 자신을 탐색하며 자기 노출을 간간히 하였다.

3회기 : **차생활과 예절 배우기**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차와 관련된 예절을 배우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차를 마시는 자세로 허리도 펴고 미소도 띄우고 옆사람과 눈도 맞추며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마셨다. 차 마시려고 하니 허리도 아프고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새삼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A7은 손자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셨다.

4회기 : **차 우리기**를 체험해 보았다. 차를 우리는 동안 겸손과 봉사, 예절을 통해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내면 탐색을 하였다. 또한 직접 차를 우리고 난 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A5노인은 차를 정성 드려 우려서 자신도 마시니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또 다른 노인은 집에 있는 커피라도 이렇게 정성 들여 차를 대접해야겠다고 하시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실행단계(5회기 ~ 10회기)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탐색을 통해 위축된 자아를 되찾게 하고, 주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삼았다.

5회기 : **차 대접하기**를 해 보았다. 차를 대접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하고 예절을 배우며 타인에게 배려 자세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차를 통해 주의집중이 향상되고 사회성을 기르며 바른 자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A4노인은 자신이 대접 받았을 때 느낌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자세가 바로 하게 되고 진짜 대접받아서 저절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6회기 : **차와 함께 여행하기**로 하였다. 차와 함께 감정 표출 및 욕구탐색을 통한 자기표현, 의사소통 의욕 증진 되도록 하였다. A2노인은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다녀 온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해 보았다. A6노인은 비행기 타고 대학 다니는 손자와 여행 다녀왔다고 하시며 자랑 하였다. 마음으로 자녀, 손자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이 느껴졌고 손자들 자랑을 하느라 평소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다.

7회기 : **차와 옛 추억하기**로 하였다. 차를 마시며 예전

에 나와의 의미 있는 사람에 관해 회상해봄으로써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였다.

A1노인은 예전에 함께 했던 이들을 떠올리며 표정이 밝아졌다. 그 시절로 되돌아 가고 싶다고 하면서 힘들었지만 서로 위해주고 웃어주며 함께 울어준 이웃이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8회기 : **차 목걸리**를 만들어 걸어 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차를 마시며 목걸이를 만들어 주고 싶은 사람, 사람들에 대한 관심, 타인 수용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며, 긍정적 경험과 인내심의 증가 등으로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누구에게 걸어주고 싶은지, 아니면 본인이 이 목걸이를 하고 가도 싶은 곳 등을 물러 보았다. 손자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 영감님과 영화 보러가겠다 등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나타냈다.

9회기 : **차 복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을 넣기로 했다. 복주머니 안에 담고 싶은 것 말하며 차를 마시고 예전에 만들어 본 복주머니를 만들어 즐거움을 찾는 욕구 탐색을 하였다. 노인들은 각자 착한 손자에게 주고 싶은 돈 만원과 운동화,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영감님과 자신의 모습, 손녀에게 줄 반지, 손자가 오면 차려주고 싶은 밥상이라며 밥 3그릇과 조기구이 등을 그렸다. 노인들이 그린 소중한 것들은 노인들에게 에너지를 주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했다.

10회기 : **차 마음 비우기**로 현재 힘들거나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들이 힘든 상황을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는 다 같이 아~~~ 그랬구나 하고 연습해보았고 노인들의 힘든 상황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 주었다. 노인들이 서로 비슷한 경험들이 나오면 서로 공감해 주고 격려하며 조언 해 주었다.

종결단계(11회기 ~ 12회기)에서는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각자 이야기로 삶을 살아온 표현을 해보고 난 후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으로 서로 통합되는 건강한 자세의 의사소통이 향상됨을 보고자 하였다.

11회기 :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일을 회상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되도록 하였다. 차를 마신 후 A1노인은 큰아들 장가갈 때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하니 다른 분들도 자녀 결혼할 때 좋았다고 이야기 하시며 서로의

[Table 3] Change of attitude related to communication by target individual

object person		initial stage	execute phase, close stage
1	A1	Looked gentle and didn't express yourself well, didn't know the date and day of the week and was bothered. No words	Complimented the person next to you for your work and sang along a little bit. He sang to the applause and always smiled, and he expressed his feelings while praising others.
2	A2	He likes to sing and dance, but he pretends he doesn't know even if the person next to him gives him a compliment, but he seems indifferent, because he always sounds like he's poking at everything, and he's always annoyed and sulky	He said he wanted to be the best, and he was very determined to do everything first. Thank you for the large number of people who acknowledge me. She participated very actively in the song and felt sorry after the song was over.
3	A3	He is unhappy and asks others for his own good. an angry expression on one's expres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can't see well,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ha Culture Convergence Program, and as they are supported by the time of sharing, they feel a sense of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attitude become softer. I saw you trying to take the lead in everything.
4	A4	There were times when he had a long face. He was active in taking care of his neighbor when he was in high spirits. He had a lot of ups and downs in his emotions. Sometimes he said negative things, and he was about to die.	He always thought about his family and missed the house where he lived with his children. He said that his children were busy eating and living, and that they should live well together, but he was still missing himself.
5	A5	He says he doesn't know anything, doesn't fit in with other people, thinks alone and moves on his own.	Tea. We know the order, show concentration, talk to the person next to us, laugh a lot, laugh a lot all the time, take care of this and that and prid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is yourself.
6	A6	No facial expressions, no speaking, no interest in what people around you say, no response from the people next to you, no response from the people next to you, no sign of yourself, no expression of your own, no expression of your own, no expression of your own accord, one by one.	He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o express himself better, laugh, know the taste of tea and give rave reviews, and show a lot of relaxation after receiving compliments from people next to him on the people next to him.
7	A7	If I said I couldn't do anything, if I didn't participate in the program very passively, if you didn't talk about it, just smiled, if you refused the car at first, I rarely talked about it.	He interprets when others make presentations and sometimes says he or she misses his children, expresses the five senses and omens of tea, but he drinks tea very well, says hello to ten people and thank the hosts very often.

감정들을 공유하는 즐거운 이야기가 지속되었다. 인생에서 자녀를 낳아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성취감과 자신 스스로 자신감이 높았던 시절이야기로 표정들이 밝아졌다.

12회기 : 차편지로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께 그 동안 전하지 못한 말을 표현하기를 하였다. 차 편지지에 장점만 적음으로 서로의 고난을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며 서로 정서적 지지로 함으로써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편지지에 자신의 장점을 적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적어 보기도하면서 노인들은 자기수용과 삶에 대한 포용과 여유가 엿보였으며 각자 노인들에게 지지를 해 주며 종결하였다.

3.2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대상자 개인별 의사소통 관련된 태도 변화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개인별 의사소통에 관련된 태도 변화를 프로그램 진행 중에 관찰되는 표정과 행동, 태도 면에서 비교하여 요약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이용시설노인들을 대상으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H시 S복지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명을 주 1회 60분씩 3개월 간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척도와 태도 변화 기록을 활용하였다. 각 회기별 노인들이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각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회기별 의사소통과 관련된 심리 및 행동 변화를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회기별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으로 본 연구의 과정은 초기단계(1회기 ~ 4회기), 실행단계(5회기 ~ 10회기), 종결단계(11회기 ~ 12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각 회기별로 연구대상자들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심리 및 행동 변화 등을 기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의 행동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노인은 신체적으로 힘이 고갈되고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대화함에 있어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자신도 알아가고 타인도 알아가면서 이해되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과거에 가족들과 함께 했던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재경험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또한 차를 정성스럽게 우려 자신에게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아보는 기분을 느끼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도 감사함을 느끼는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지지를 받으며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이용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노인들에게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은 심리,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용시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는데, 대상의 제한성으로 인해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일반 재가노인들, 치매노인들, 시설입소노인들 등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의사소통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일반화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노인들의 인지,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많이 보고 되어 왔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비교적 제한된 노인들에게 있어서 노인 병동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환경 및 계층의 노인들을 위한 차문화 융합 프로그램 선정 및 구성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the cost of medical treatment when the baby boomers switch to the 65-year-old population. Institute of Health Administration”, Vol.23, No.4, pp.377-386, 2013.

- [2] S.T.Park, B.T.Choi, B.J.Seo, G.M.Kim, and E.K.Lee, “Community of Elderly Welfare”, pp.41-104, 2017.
- [3] K.H.Cho, “Develop programs to promote empathetic communication among the elderly and verify their effectiveness.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at Kore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University”, pp.1-10, 2018.
- [4] O.H.Lee. “The desire and service preference of the elderly to use community protection services. welfare administration theory”, Vol.16, No.2, pp.47-70, 2006.
- [5] J.E.Yang,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Using the Elderly Welfare Center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at Gwangju Women’s University”, pp. 45-68, 2015.
- [6] K.H.Jung, Y.H.Oh, N.H.Hwang, M.A.Oh, S.H.Lee, and J.S.Kim, “Develop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dex for the Elderl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Daeje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245-268, 2017.
- [7] J.E.Seo. and H.J.Kim, “Meta-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amily functions.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Treatment Society”, Vol.20, No.3, pp.457-486, 2012.
- [8] H.S.Ahn, “Community of Elderly Welfare”, pp.102-127, 2013.
- [9] J.D.Kwon “dean of the School of Welfare for the Elderly”, pp.86-135, 2011.
- [10] H.R.Ryu, “Fac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elf-Respect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City of Kangwon-do with the Free Convenience Facilities”, Vol.16, No.6, pp.680-694, 2016.
- [11] J.H.Kim and H.H.Kim, “A Literature Study on the Communication Skills of Older People, A Study on Language Deafness”, Vol.6, No.1, pp.28-58, 2009.
- [12] J.E.Eun and S.H.Lee,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Women in Rural Areas, and Korea Non-profit Research”, Vol.6, No.1, pp.27-85, 2007.
- [13] Y.N.Kim, “A Study on Couples Communication, Master’s Degree thesis, Hanyang University”, pp.78-95, 2001.
- [14] S.W.Kim, “Communication and Marriage Nationaldo, Master’s Degree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p.30-68, 2002.
- [15] H.S.Kim, S.H.Park, S.H.Park, J.H.Lee, and M.K.Jeong, “Human Relationship Theory. Paju: Yang Seowon”. pp.88-127, 2016.

REFERENCES

[1] S.Y.Lee, Y.H.Kim, and H.S.Kim, “predicted the number

김 인 숙(In-Sook Kim)

[종신회원]



- 1998년 2월 : 부산대학교 가정학
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
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2월 ~ 2015년 2월 : 부
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교
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복지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차문화치료, 사물인터넷, 복지경영, 평생교육

박 선 희(Sun_Hee Park)

[종신회원]



- 2012년 8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
지식사
- 2018년 2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
지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겸임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통합힐링복
지협회 부회장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 차문화치료, 사물인터넷